

컬렉션에 나타난 현대 헤어스타일의 포스트모더니즘 표현 양상(I)

이수인·박길순^{†,*}

충남도립청양대학 뷰티코디네이션과,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Postmodernism Expressions in Contemporary Hairstyle in Collections(I)

Su-In Lee and Kil-Soon Park^{†,*}

Professor, Dept. of Beauty Design, Cheongyang Provincial Colleg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5. 8. 31. 접수; 2006. 3. 4. 채택)

Abstract

This study first aims on preparing a systematic analysis basis for the expression aspects of hairstyle in forms of postmodernism. Secondly, it studies the meanings and aspects the hairstyle trend through a post modernism approach about its expression methods based on the suggestive collection hairstyles. Third, it confirms that hairstyle is also one of fashion that can be represented as modern society and culture by explaining that post modernism appears in hairstyles. This study analyzes the expression aspects of hairstyle in forms of post modernism that appears in modern collections by preparing theoretical theories for this study based on former studies related to post modernism theory and clothes from a qualitativ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epared a theoretical analysis frame to study the expression aspects of hairstyle in forms of postmodernism first. Secondly, as a result of analyzing based on the analysis, they show that disoriginality of hairstyle can be freely interpreted by the author through borrowing and restoration, disformation through discord and incompleteness, discenterization through non-westernization and sub-culture, and inter-text through many symbols and meanings. Thirdly, as the postmodernism movement that represents modern society, culture, and art movement is reflected on hairstyle, it can be considered as a small culture and a product of the era.

Key words: postmodernism(포스트모더니즘), disoriginality(비독창성), disformation(불형식성), discenterization(탈중심성), inter-text(상호텍스트성).

I. 서론

인류가 출현한 이래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은 사회, 문화,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

였으며 맥락적으로 이해되어 왔다¹⁾. 새로운 예술 운동들이 범람하면서 대표할만한 양식적 특징은 보이지 않고 다만 다양한 전위적 운동의 전개와 실험적 시도로 전통적인 장르가 혼합되거나 붕괴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대 사조는 포스트모더니

[†] 교신저자 E-mail : kspark@cnu.ac.kr

1) 김민자, *복식미 엮보기 - 복식미학 강의 2* (서울: 교문사, 2004), p. 13.

즘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²⁾. 즉,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인 현대는 간단한 특성이나 하나의 간결한 양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하고 모호한 개념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은 의복,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악세사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도발 패션화 경향으로 의복과 함께 다른 차원의 표현 수단들이 복합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 중 헤어스타일은 다른 표현 수단에 비해 자기 연출적인 성향이 강하고 변화가 쉬우며 전체적인 이미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으로 체계적인 이해의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며 더욱이 현대 사회와 문화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현대 헤어스타일의 표현 양상에 대한 본 연구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현대 헤어스타일의 표현 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헤어스타일의 트렌드를 제시할 수 있는 컬렉션의 헤어스타일을 중심으로 그 표현 수단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을 통하여 의미와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이 헤어스타일에도 나타남을 설명함으로써 헤어스타일도 현대 사회와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패션의 하나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생 배경과 개념, 헤어스타일과 관련된 의복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포스트모더니즘 발생배경과 개념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post'와 'modernism'

의 합성어로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그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럽고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모더니즘은 칸트(Kant)의 계몽주의 철학인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이 중시되었으며 인간 삶의 총체적 진보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이러한 모더니즘 시대의 예술가들은 고전주의도, 리얼리즘도 반대하면서 예술은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예술은 그 자체로서 혁명인 것이며 어쩌면 어떠한 혁명보다도 더 근원적인 혁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 따라서 예술적 혁명은 아방가르드적인 경향으로 발전하였다. 아방가르드는 소속 부대를 엄호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초에서 활동하는 분견대나 별동대를 의미하는 군사 용어이지만 지적, 기술적, 예술적 영역에 있어서의 혁신적이고 극단적이며 실험적인 집단이나 그 운동 내지는 대담하게 자신의 시기를 앞서는 집단을 나타내는 공간적 비유⁴⁾로써 모더니즘은 아방가르드적 의식을 가진 예술⁵⁾이라고 할 수 있다. 아방가르드적 모더니즘의 기법은 다양함을 출현시켰는데 그 기법의 핵심은 전통적인 담론 장치들, 예를 들어 원근법적 사실주의 또는 통일적인 사실감을 주는 공간을 파괴한다. 이러한 효과를 위해 몽타주, 콜라주, 아상블라주 등의 기법들이 활용되고 그 표현의 새로움을 창조하였으며 새로운 작가의 스타일은 또 다른 형식으로 구축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18세기 계몽주의 프로젝트인 모더니즘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중산층의 속물주의가 새로운 보수주의와 연결되어 계몽주의 프로젝트를 거부하고 위협하는 부정으로 간주하였다⁶⁾. 또한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은 구조주의의 반발로 시작된 포스트 구조주의⁷⁾에서 비롯된 것으로 언어의 지시적 기능에 대한 불신, 인간 주체나 개별적인 자아에 대한 깊은 회의, 텍스

2) T. Polhemus, *Street Style*, (New York : Thames and Hudson, 1994), p. 131.

3) 이병창, *이야기로 풀어보는 20세기 사상가*, (천지, 2001), p. 78.

4) M. Calinescu, 이영욱의 3 역,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시각과 언어, 1993), p. 127.

5) 이병창, *Op. cit.*, (2001), p. 3.

6) J. Habermas, 이영철 역, *미술평평 30선*, (서울: 중앙일보, 1987), pp. 164-165.

7) 김육동,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서울: 민음사, 1996), pp. 38-55.

트와 독자의 역동적인 관계, 추상적 체계성과 총체성을 거부하는 특성을 갖는다⁸⁻¹⁰⁾.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적 정의를 보면 주체성의 상실로 독창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불확정적인 의미와 엘리트적인 최고지향적인 모더니즘의 사상을 부정하여 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술적 가치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표현 양상은 아방가르드적인 모더니즘적 표현 양상과 비슷하게 표현되는데 즉, 미적 공간을 분열하고 이질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과거의 파편들, 잡동사니를 사용하는 프리콜라주, 모방이나 인용 등을 어떤 의미가 없이 사용하는 차용 등을 아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더니즘의 아방가르드적 표현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한 표현 기법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모더니즘의 그것은 작품의 원작자라는 개인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표식으로 아용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모더니즘은 새로움에 대한 진리를 인식하고 근원적 주체성이 존재한 채 담론을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담론 장치를 제시하는데 관심을 갖는 것으로 여전히 형식적이고 미학적인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리가 존재하는 주체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탈형식적이고 불확정적이며 비독창적이다.

2. 의복에 대한 선행 연구

헤어스타일은 도탈 패션화에 따라 의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 표현 양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의복에 대한 선행 연구 등을 중심으로 어떠한 표현 양상이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1) 의 복

박명희(1991)¹¹⁾는 예술의 한 장르인 건축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 의복에 나

타난 특성을 모더니즘의 물 역사성에 반발한 역사적인 요소와 토착적이고 민속적인 요소가 나타나며 상징적이며 전위적인 특성도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정현숙(1995)¹²⁾은 현대 의복의 특성을 저항, 해체, 패션, 혼성 모방의 형태로 구분하여 저항, 해체, 혼성 모방으로 설명하였다. 바나드(M. Barnard)¹³⁾는 현대 패션은 모호하고 애매한 특성으로 개인적 해석과 불확정적 의미를 전달하고 표현방법은 과거의 파편들, 잡동사니를 사용하는 프리콜라주로 어떤 의미도 없는 혼성모방적 경향이 강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김민자(1998)¹⁴⁾는 현대 패션을 열린 개념의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으로 정의하고 내적 외적 특성을 예술의 종말에 따른 패션의 민주화로 패션에서의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 사이의 경계 해체이며 탈권력에 의한 경계의 와해로 중심화, 총체적, 국제적 보편성, 확립성으로서의 열망은 종말화되었으며 다원성으로 이행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불확정성에 의한 다원주의에 따른 숭고미 그리고 그의 기법에서 비롯된 변형식주의적 혼성모방으로 설명하였다. 이정후(1998)는 현대 의복의 다양한 특징을 포스트모더니즘 불확정성으로 규명하고 성, 신분, 문화적 측면에서 성 교차 복식(sex or gender cross-dressing), 푸어 룩(poor look), 그리고 흑인 하위문화 스타일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인간의 정체성이 본질적으로 불확정적인 한, 인간의 삶과 연관된 사회문화적 범주가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고 과거와 달리 유행이 전파되는 과정에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라는 속성이 자리하는 한 불확정성과 연속된 지속적 변증법은 앞으로도 계속 패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명하였다¹⁵⁾.

이와 같이 현대 의복은 애매하고 모호한 개념을 가진 포스트모더니즘 영향으로 다원적이고 절충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외적인 측면에서는 해체, 복고, 혼성모방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내적인 측면에서는 저항, 계층, 신분, 불확정성 등의 특성을 중심

8) J. Story,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박모 역 (현실문화연구, 1999), pp. 242-244.

9) *Ibid.*, pp. 233-241.

10) 김원희,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차용과 반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25.

11)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12) 정현숙,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13) M. Barnard, *Fashion as Communication*,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1996), pp. 145-170.

14)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1),” 복식 37호, (1998).

15) 이정후, “포스트모더니즘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으로 논의함으로써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표현의 방법, 문화와 시간, 공간을 초월한 표현 등 열린 표현 양상으로 논의되었다.

3.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 설계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과 의복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포스트모더니즘 특성과 표현방법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분석틀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과 선행 연구를 통하여 헤어스타일의 포스트모더니즘 특성과 표현방법은 크게 4 가지 특성인 비독창성(disoriginality), 몰형식성(disformation), 탈중심성(discenterization), 상호 텍스트성(intertext)으로 분류하고 표현방법은 차용(appropriation), 복고(retro), 부조화(disharmomy), 미완성(incompletion), 비서구(ethnic), 하위문화(subculture), 상호 텍스트(intertext)로 정리하여 분석틀로 적용하고자 한다.

III.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1995년 S/S 시즌부터 2004년 F/W 시즌까지 10년 동안의 컬렉션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의 표현 양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컬렉션은 주요 도시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의복의 트렌드를 중심으로 컬렉션이 이루어지지만 헤어스타일의 트렌드도 제시한다는 점에서 헤

어스타일의 전반적인 표현 수단을 이해하는데 타당하므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자료는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석, 박사학위논문 18편 중에서 5편 이상 연구 대상이 되었던 디자이너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디자이너는 총 12명으로 A. McQueen, C. Dior, C. Lacroix, C. D. Garcons, H. Chalayan, I. Miyake, J. Galiano, J. P. Gaultier, Moschino, R. Gigli, V. Westwood, Y. Yamamoto이다. 선정된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Collection>, <gap>, <collezioni>, <VOUGE>, <ELLE>와 패션전문사이트인 <http://www.Firstview.com>, <http://www.style.com>을 이용하였다.

<Collection>, <gap>, <collezioni>, <VOUGE>, <ELLE>는 패션을 주도하는 일본, 이태리, 프랑스에서 발간하는 패션 전문 잡지로서 그 내용은 주로 사진과 리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진의 크기가 크고 헤어스타일이 자세하게 편집되어 적합하다고 여겨져 선정하였다. 또한 컬렉션 위주로 사진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http://www.Firstview.com>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767개의 디자이너별 작품과 세계패션에 관한 각종 자료를 물론 4대 컬렉션의 패션 쇼 동영상과 사진을 함께 볼 수 있는 세계 최대의 패션 전문 인터넷 사이트이다. <http://www.style.com>은 최근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19명의 세계적인 디자이너에 대한 컬렉션 사진과 더불어 트렌드와 뉴스에 대한 정보와 쇼핑볼까지 구비한 세계적인 패션 전문 사이트로 위의 사이트를 선정하여 본 자료로 할

<표 1> 이론적 분석틀

특성	의 의	의 미	표현방법
비독창성	원본성 부정 주체성의 상실	진정한 새로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새로움에 대한 인식은 기원과 역사, 인용을 통해서 이루어짐.	차용 복고
몰형식성	전통 형식 파괴 美 질서 무시	규칙이나 법칙이 없는 무질서한 디자인 원리를 바탕으로 일정한 형식 없이 이루어짐.	부조화 미완성
탈중심성	소외된 것 부상 타자의 부상	그 동안 소외된 것들을 통해 확장된 표현 세계	비서구 하위문화
상호 텍스트성	저자의 죽음 독자의 탄생 불확정성	작가가 의도한 하나의 의미가 아닌 독자가 중심 맥락적, 상대적 관계에 의한 상호교차적인 다양한 의미	상호텍스트

용하였다.

연구방법은 Qualitative analysis(정성분석) 방법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과 의복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을 바탕으로 현대 컬렉션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의 포스트모더니즘 표현 양상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V.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표현 양상

1. 비독창성(Disoriginality)

비독창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모더니즘의 창조적이고 원본적인 개념이 아닌 기존의 전통과 역사를 기반으로 한 또다른 새로움을 이끌어낸다는 개념이다. 이는 표현 양식에 대한 문제로서 과거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스타일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원본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창작영역을 확장시켰다. 이는 차용(appropriation)과 복고(retro)의 표현양상으로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다.

1) 차 용(Appropriation)

차용(借用, appropriation)은 빌린다는 의미로서 '그 자산(proper)의 혹은 자산(property)'을 의미하는 라틴어 propius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사전적 의미는 '전유(專有)', '사용(使用)', '도용(濫用)'으로 '자기 것으로'의 뜻에서 '전유하다', '사용에 쓰다', '착복하다'로 해석된다. 즉 '빌리다',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다' 더 나아가 '훔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와 같이 차용이란 작가의 깊은 내부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닌 주변에서 표류하는 선행 목록들 중에서 모방, 인용한 것이다. 이때 차용은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복사하여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 표현과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주제가 내용으로 구체화되면 그 주제는 불가피하게 어떤 변형을 가져오며 또한 상상력에 의해 새로운 감정으로 다시 배열되어 표현된다¹⁶⁾.

본 연구의 차용은 과거에는 헤어스타일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오브제를 사용하거나 과거에 등장하지

않았던 헤어스타일로 동물, 사물, 기계 등의 형상을 모방한 표현 양상을 말한다.

<그림 1>은 동물적인 모티브에 레이어(layer)한 모발로 거친 질감을 표현하고 양쪽 끝에 뿔을 이용하여 장식하였다. 그리고 앞머리의 뱅(bang)은 동물의 이마를 연상할 수 있는 M형으로 처리하여 포퓰스러운 짐승의 이미지를 모방하였다. 또한 <그림 2>는 모자를 모티브한 작품으로 카플린 햇(capelinc hat)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만든 작품이다. 카플린 햇은 화려하게 물결치는 폭넓은 브림(brim)과 비교적 낮고 꼭 맞는 크라운(crown)을 가진 모자¹⁷⁾이지만 진짜 모자가 아닌 카플린 햇과 같은 모자를 모방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3>은 어린이들이 음악 시간에 사용하는 템버린을 그대로 머리장식에 이용하였다. 이것은 특별한 과정이나 절차 없이 있는 그대로의 가성품을 인용한 것으로 차용의 표현 양상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차용은 과거에 해



<그림 1> McQueen, 97 F/W, 「Collection」.



<그림 2> Garçons, 99 F/W, 「Collection」.

16) 이효진, “현대 복식에 내재된 차용의 의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51권 4호, (2001), p. 143.

17) 라사라페션정보, *액세서리와 코디네이트*, (2000), p.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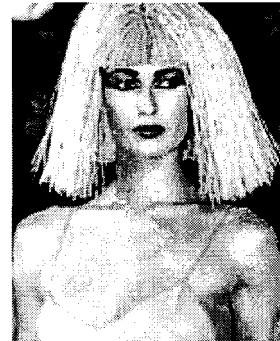
〈그림 3〉 Galiano, 97 S/S, 'Firstview'.

어 장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동물적, 식물적, 사물적 대상을 모방하거나 실제 생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소품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여 헤어스타일의 장식 식품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표현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2) 복고(R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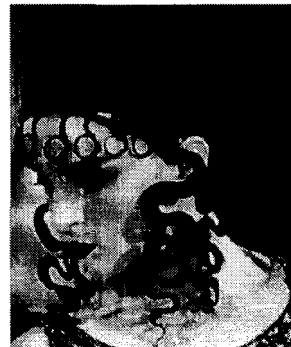
포스트모더니즘은 과거의 양식에 대한 적용과 응용으로 또다른 새로움을 부여하는데 이때 단순하게 과거에 등장한 스타일을 모방하기보다는 과거 스타일을 이용하여 더욱 새롭게 발전, 재생시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복고¹⁸⁾라고 하는데 표현방법은 20세기 이전의 모든 스타일로써 고대 이집트로부터 19세기까지의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표현방법 모두 포함한다.

〈그림 4〉는 이집트의 스타일을 복고한 것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신의 모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모두 가발 사용이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관습은 로마 문화가 유입된 때까지 계속되었다. 가발을 쓴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머리를 면도하는 종교적 습관과 더운 이집트의 기후로 인해 벌레로부터 머리를 깨끗이 하고 강한 태양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기능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가발의 모양은 크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기 위해 자연적인 머리 형태를 모방하지는 않았으며 다양한 크기로 땀은 머리가 일



〈그림 4〉 Galiano, 97 F/W, 'Collection'.

반적이었다¹⁹⁾. 그러나 현대에 보여지는 이집트 스타일은 그림에서와 같이 이집트 전통 헤어보다는 가벼운 신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색상도 골드로 과거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5〉는 헤어라인과 귀 옆에 늘어뜨린 커다란 애교머리(lovelocks)²⁰⁾를 하고 있다. 애교머리 스타일은 17세기에 프랑스 패션의 리더인 Honore d'Albet 장군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머리의 부분 다발을 이용하고 다른 것보다는 좀더 길게 하여 어깨까지 내려오도록 하였다²¹⁾. 이러한 애교머리는 더욱 발전하여 여성들이 극단적인 헤어스타일을 창조할 때 투어(tour)²²⁾라는 앞머리의 애교 가발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애교 가발은 코모드(commodes)로 발전하였는데 코모드는 철사 구조물로 머리를 세워 화려하고 장식적인 헤어스타일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그림 5〉 Galiano, 99 S/S, 'Collection'.

18) 박명희, *Op. cit.*, (1991), p. 41.

19) R. Corson, *Fashion of Hair*, (London: Peter Owen, 2001), pp. 24-27.

20) *Essence English-korean Dictionary*, (민중서림, 1987), p. 1040.

21) Richard Corson, *Op. cit.*, (2001), p. 206.

22) 꺾을 강하게 하여 앞머리 애교머리로 이용한 가발.



〈그림 6〉 Galiano, 04 S/S, 「Collection」.

러한 코모드의 영향으로 18세기 로코코시대의 헤어스타일은 점차 높아지고 거대해졌으며 루이 16세 부인인 마리 앙투아네트(Mari Antoinette) 시대에는 높이와 장식 기교에서 가능성의 한계에 도달했다. 이러한 높고 거대한 헤어스타일은 〈그림 6〉과 같이 오늘날 재등장하였다. 그러나 그 시대의 계급과 지위를 나타내기 보다는 오히려 유머스러운 광경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헤어스타일의 비독창성 특성 중 복고의 표현양상은 과거의 스타일이 다시 재현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때 과거에 사용되었던 상징적 요소나 형태, 재료 등이 그대로 차용되고 모방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미지만을 재현하여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한 헤어스타일에 기여하였다.

2. 물형식성(Disformation)

예술 작업에 있어서 형식에 대한 원리와 질서는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시대부터 제시되어 근대 심리학파 미학자들에 의해 논리적으로 정리되었다. 특히 디자인 원리와 구성 원리라는 법칙이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법칙의 핵심은 조화, 대비, 비례, 대칭, 균형, 리듬 등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중시하는 내용을 갖는다²³⁾. 이때 원리는 인간의 생리적이고 감정적인 면에 대한 원동력에서 출발하여 모든 사람의 공통된 미적 추구로서 다같이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전체를 바탕으로 이

루어진다.

그러나 물형식성은 이러한 형식의 원리를 무시한 개념으로 종전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영역을 확장시켜 이전에 사용되거나 적용되었던 원리와 질서를 무시하고 일관된 표현세계를 무한대의 표현세계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부조화와 미완성의 표현양상으로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다.

1) 부조화(Disharmony)

부조화는 익숙치 않은 변화와 조화 등을 통해 기존의 미적 질서와 가치에 대한 무시로서 조화에 대한 개념을 파괴하는 것이다. 특히 형식에 대한 디자인의 원리를 무시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이때 디자인 원리란 어떤 실체를 형성하기 위해 그것이 이루어야 할 각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 구조적인 계획이다. 즉, 디자인 요소들이 어떤 특정한 효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연관 법칙인데²⁴⁾ 부조화는 이러한 원칙과 가치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 영향에 의해 형식에 대한 디자인 원리가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즉 질서를 무질서로, 미나 비례를 무시한 추와 왜곡으로, 미리 설정된 의미의 명확성을 모호성으로 과거에는 비정상적이고, 예술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철학적으로, 창조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성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인식되어 긍정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헤어스타일의 부조화적 현상은 일정한 척도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채 서로 부조화시켜 조화롭지 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어 미에 대한 영역을 확장시켜 충격적인 새로움까지도 미(美)창조 개념으로 포함되었다.

〈그림 7〉과 〈그림 8〉에서 보여지는 헤어스타일은 전체적으로 부담스러운 만큼 비대하고 방향감이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으며 무게감도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어 부조화적인 형태로 구성되었다. 공간(space)은 통일과 변화를 한층 더 강화하여 두 원리의 상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증대시켜 융화와 조화로운 화면을 구성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²⁵⁾.

23) 이근호, *한권으로 배우는 디자인 이야기* (유림문화사, 1999), p. 23.

24)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1999), p. 105.

25) 권상구, *기초디자인* (미진사, 2002), p. 155.



〈그림 7〉 Lacroix, 98 S/S, 『Style』.



〈그림 8〉 Carcons, 97 S/S, 『Collection』.

그러나 〈그림 9〉와 같이 모자를 머리에 쓰지 않고 스텝들이 막대를 이용하여 들고 있어 공간은 창조되었으나 머리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자는 매우 크며 머리와 모자 사이에 형성된 공간은 변화와 통일을 위한 조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로 어색함이 보인다. 그 외에도 무리한 컬러의 조합이나 질감에 따른 부조화적인 헤어 연출을 통하여 어색하고 인위적이며 전체적인 통일감을 무시한 부조화적 미적 관



〈그림 9〉 Yamamoto, 00 S/S, 『Vogue』.

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부조화적 현상은 일반적인 헤어스타일의 미적 가치와 기능성에 대한 미적 질서를 파괴하며 새로운 생동감과 변화를 주는 것 이상으로 부적절하고 어색한 미의식을 도입시킴에 따라 전에 볼 수 없었던 조화로움에 대한 개념적 한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로 이해된다.

2) 미완성(Incomple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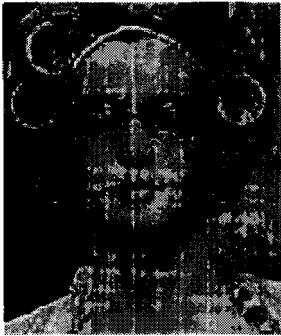
미완성은 완성에 대한 미적 개념을 부정하고 의도적으로 미숙한 형태로 마무리하거나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허물어진 형식으로써 일반적인 미의 원리와 질서를 무시하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의도적인 미완성과 진행 과정의 미완성으로 나타난다.

미완성된 헤어스타일은 어떤 미적 조화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는 작품으로 모발이 정돈·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스타일은 일반적인 미적 질서로 설명될 수 없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완성된 스타일이 컬렉션에 등장한다는 것은 새로움 이상의 충격적인 현상이며 동시에 미의식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1〉은 최종 스타일을 위하여 머리카락에 물을 말아 웨이브를 형성시켜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최종 스타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작업중의 셋팅한 상태를 마무리하지 않고 그대로 무대에 등장시킨 것으로 미완성된 상태로 이해된다. 〈그림 12〉도 마찬가지로 가발을 착용할 때 두상과 밀착시켜 완성해야 되는데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가발 착용 도중의 상태로 무대에 등장하여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완성은 의도적으로 미숙하게 미완성



〈그림 10〉 McQueen, 99 S/S, 『Collection』.



〈그림 11〉 Moschino, 01 F/W, 『Collection』.



〈그림 12〉 Garçons, 04 S/S, 『Collezioni』.

시키거나 또는 어떤 작품을 위한 과정을 그대로 등장시키는 방법을 통해 기존의 미적 질서를 파괴하고 표현의 한계점을 극복하였다.

3. 탈중심성(Discenterization)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여러 체제 속에서 주변화된 타자와 그들의 조건을 주목하는 탈중심적 특성을 갖는다. 그 결과, 복합 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상²⁶⁾하는 것으로 ‘이것 혹은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이 아닌 ‘둘 다’ 혹은 ‘제3’의 성격으로 다원적인 체제이다. 이러한 체제는 이제껏 소외되었던 비서구, 하위문화, 여성성 등이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이원적이고 획일적인 미의식이 붕괴되고 다원적이고 다양한 미의식에 의한 새로움이 창조되었다. 이는 비서구와 하위문화의 표현 양상으로 나타난다.

1) 비서구(Ethnic)

현대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각 문화간 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각 민족의 고유 문화가 상호 작용을 통해 다른 문화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²⁷⁾. 또한 현대인들은 대량 생산에 의한 동질화, 획일화에 대하여 싫증을 느끼고 있으며 과학 문명의 급진적인 발달이 가져온 인위적인 혜택과 발전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이고 불안해 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싫증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신비스럽고 심신을 편안하게 해 주는 비서구적이며 다문화적인 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비서구란 미국과 유럽 이외의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의상과 민족 고유의 특성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것으로 이는 비기독교 문화권의 민속을 가리키면서 기독교권 국가라도 그 지역 토착 원주민들의 전통 복식까지 포함한다.

이와 같이 서구 이외의 비서구권의 전통적인 양식에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켜 그동안 무가치하고 소외되었던 미적 가치를 부각시킴으로써 서구 중심적이었던 획일적 미의식을 파괴하고 부정하여 다양한 미적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그림 13〉은 상투를 틀어 정수리에서 정리한 헤어스타일로 고대부터 동아시아 전반에 자주 등장하는 스타일이다. 특히 중국 진시왕 병마용강(兵馬俑坑)에서 병사, 군마, 관료 등 다수가 발굴되었는데 위의 그림은 가장 많이 보이는 일반 병사의 헤어스타일로 전체 머리를 정수리부분에 고정하는 상투 튼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정중선이 아닌 약간의 위



〈그림 13〉 Dior, 00 F/W, 『Collection』.

26) 윤난지, 『현대미술의 풍경』 (예경, 2000), p. 24.

27) 이봉덕,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 69.



〈그림 14〉 McQueen, 03 F/W, 'Style'.

치를 변화시켜 개성적인 헤어스타일로 연출하였다. 이와 같이 비서구 문화권의 전통적인 헤어스타일이 현대적 감각을 통해 새롭게 표현되어 신비함을 자아내고 있다.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긴 모발을 둥글게 모아서 머리 앞쪽에 고정된 블루 몽족 헤어스타일과 유사하지만 둥글게 모아진 부분 외에 가닥가닥 모발을 주변에 내려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서구 스타일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의 비서구권 헤어스타일을 이용하여 근대 이후 전형화되고 획일화된 미의식에서 탈피한 새로움과 다양함을 표현하고 있다.

2) 하위문화(Subculture)

하위문화는 한 사회 집단의 소수 또는 특수한 부분으로 다른 것과 구분될 만큼 특이하게 나타나는 생활방식을 가리킨다²⁸⁾. 이러한 하위문화의 파생을 피셔(Fischer)²⁹⁾는 도시화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20세기 이후 도시 집중 현상은 인구의 이질성, 유동성을 가져왔고 복잡한 사회구조 내 구성원은 더욱 소외감과 좌절을 느끼며 무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무관심속에 관심을 끌기 위한 이탈 행동 양상도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등 세계적인 대도시의 시내 중심가는 이미 약물중독자, 이민 온 소수민족들, 국제 결혼 부부, 예술가,

실업자, 학생, 범죄자, 보헤미안들, 레즈비안, 게이 커뮤니티 등 이질적이며 다양한 인종의 구성으로 더욱더 다양한 하위문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복잡한 사회구조 속의 다양한 하위문화 집단들은 그들 각자의 독특한 문화적 양상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창조된 스타일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지배 문화의 가치관, 생활 양식, 사상 등을 무시하거나 대응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였으며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구축하고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헤어스타일을 이용한다.

하위문화의 대표적인 히피는 본격화된 베트남전에 의한 반전운동, 미국 내에 정치와 사회 혼란, 물질만능과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에 대한 반항 의식이 팽배됨에 따라 1960년대 등장하였다. 히피는 머리모양, 관습, 복장, 습관, 사고방식 등 생활양식에 변화를 추구하였는데 그들의 스타일 특징은 다양성과 반문화적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보편적인 청바지에서부터 에스닉, 노스텔지아, 사이키델릭, 미니 등 모든 요소들을 일정한 기준 없이 착용자의 개성에 따라 사용하였다³⁰⁾. 구성원들은 주로 중산층의 백인 남성들로 마약 상용자, 교육 거부자, 가난한 자 등 사회적 이탈자였다³¹⁾. 또한 인체의 완벽함을 발견하면서 벗기 시작하였고 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나체로 경작하고 수영하며 정원에 누워있기도 하였으며 여성들에겐 가슴을 노출하는 것이 인기가 있었다. 이러한 히피의 자연주의적 개념에 의해 헤어스타일도 무작정 기른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내린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그림 15〉는 무작정 길러 지저분하고 정돈되지 않은 과거의 히피스타일이 아닌 질감을 매끄럽게 정돈하고 세련된 액세서리를 이용함으로써 고급스러운 자유스러움이 표현되고 있다. 또다른 대표적인 하위문화 집단인 펑크는 1970년대 통화 팽창, 실업자 수의 증가, 산업 현장에 대한 불만족,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 상실, 대량 생산 등으로 인한 획일적 모습에 반발하는 역문화 현상³²⁾으로 나타났다. 펑크스타일은

28) 간문자, “저항 패션이 모 패션으로 전이된 현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p. 19-20.

29) C. S. Fischer, Towards a Subcultural theory of Urbanism,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 No. 6, (1975), pp. 1319-1339.

30) 이봉덕, *Op. cit.*, (2001), p. 19.

31) 간문자, *Op. cit.*, (1995), pp. 24-25.

32) 장애란, “펑크룩이 반영된 Vivienne Westwood 작품의 기호적 해석,” *복식* 39호, (1998), p. 198.



〈그림 15〉 Westwood, 98 S/S, 「Collection」.

핑크나 그린으로 헤어 염색하고 기분 나쁜 메이크업을 하고 개 목걸이, 안전핀, 면도기를 액세서리로 사용하였으며 고무나 플라스틱제의 팬츠, 마이크로 미니스커트 등으로 그들의 스타일을 표현하였다³³⁾. 〈그림 16〉은 핑크족들이 모하칸(Mohican)족의 헤어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어 옆머리는 면도를 하고 정중선 모발을 모하칸 부족처럼 세웠는데 그것과 유사하지만 머리를 면도하지 않고 정중선을 중심으로 묶어 묶여진 머리카발을 이용하여 세우고 끝머리에 빨강색의 염색을 하여 모하칸 헤어스타일처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의 핑크적인 헤어스타일은 예전의 핑크 스타일보다는 공격성과 혐오성이 완화된 채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대 퀵션에서는 현대적 감각이 반영되고 하위문화적 정체성이 상실되거나 완화된 채 스타일만 남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흑인들은 민족주의에 의해 핑크와 히피처럼

그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반사회적인 운동을 통해 그들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고자 하였다. 그들은 다른 하위문화 집단과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스타일을 형성하였다. 라스타파리(rastafari)를 신으로 추앙하는 자메이카 흑인들은 일명 Ras Tafari Makonnen인 Haile Selassie가 이티오피아 왕의 계승을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실현이자 흑인 해방을 알리는 계시로 믿으면서 흑인들의 저항운동을 라스타파리아니즘(rastafarianism)이라 하였다. 라스타파리에 대한 숭배는 하나의 독특한 스타일이 되어 라스타파리안 스타일로 명명되었다. 이 스타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헤어스타일로 머리를 가다가닥 꼬아 부피감을 형성하고 다시 다양한 굵기로 폭신한 입체감을 만드는 드래드락(dreadlocks) 스타일로 〈그림 17〉과 같다. 굵기, 결감, 색상 등의 변화를 통해 전통적인 드래드락에서 더욱 변화 있는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흑인 하위문화 스타일은 아프로(afro) 스타일로 아프리카인들이 인위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모발을 길러 이루어진 것으로 흑인들이 지배계급인 백인들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흑인들의 문화가 부상됨으로써 등장하게 된 하위문화 스타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히피나 핑크는 과거의 스타일이 재등장하는 복고와 유사하고 흑인 하위문화집단의 스타일은 비서구의 아프리카적 특성과 유사하지만 이들은 반사회적, 반문명적 정체성을 띤 의미있는 스타일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복고와 비서구적 헤어스타일과는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6〉 McQueen, 96 S/S, 「Collection」.



〈그림 17〉 Dior, 00 S/S, 「Collection」.

33)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2), p. 278.

4. 상호 텍스트성(Intertext)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는 사회구조적으로 계층간의 위계 질서와 경계가 무너지고 수평적 관계의 사회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문화의 영역에서도 다양성과 가변성이 수용되며 각각의 영역이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상호 침투하는 현상이 발견된다³⁴⁾. 또한 새로운 통신기술과 미디어는 현대사회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인 비독창성, 모형식성, 탈중심성을 가속화시킨다.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이 보편화되면서 소수 중심의 모순적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해체되고 다양한 텍스트를 접하면서 인간은 다원적인 정체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상호텍스트성이다.

상호 텍스트성의 근원과 바탕은 후기구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언어적 구조 자체를 내부로부터 해체함으로써 주체와 언어 사이의 기호성을 무시하였다³⁵⁾. 즉 모든 텍스트에 불일치와 비고정성이 내재되어 있어 기표와 기의간의 절대적 관계를 부정하고 현존하지 않는 서로 다른 의미들이 혼합되어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개념으로 언어는 공간적으로 서로 다르면서 시간적으로 영원히 지연되는 차이들의 연속 즉 ‘차연(differance)’³⁶⁾을 통해 그 의미가 드러나는 기표들의 끝없는 유희인 것이다³⁷⁾. 또한 상호 텍스트성은 주체의 분열로써 어떤 특정한 의미를 이루는 본질과 외관, 잠재와 현시, 진정성과 비진정성, 기의와 기표 등 깊이의 모델이 해체되고 깊이는 다수의 표면들로 대치된다. 따라서 중심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주체의 개념은 사라지고 빈 그릇만이 악명의 공간에서 표류한다³⁸⁾.

이와 같이 상호텍스트성은 기표들의 떠도는 유희로서 서로 다른 의미들이 모두 인용되어 독자에 의한 다양한 해석으로 무한히 확장 가능한 텍스트를 만들었다.

〈그림 18〉과 같이 왼쪽에 가지런히 놓인 흰색의 직모와 오른쪽에 브론디의 웨이브 모를 혼합시키고 앞

머리 부분을 다양한 머리핀으로 연출하여 한마디로 어떠한 경향이 묘사되고 있는지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서구적인 모발 중 가장 선호하는 색은 브론디인데 이러한 개념과는 다른 흰 모발을 함께 셋팅하여 비의식의 절대적 질서를 혼돈시켰고 또한 좌우에 다른 웨이브를 표현함으로써 종래에는 거의 없었던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그림 19〉도 마찬가지로 미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머리장식을 하고 있는데 깡통 같은 쓰레기의 개념이 머리장식으로 사용되었고 식물들이 함께 사용되는 등 지저분함과 자연적인 미의식이 함께 표현되어 하나의 헤어스타일에서 다양한 텍스트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



〈그림 18〉 Dior, 98 F/W, 『Collection』.



〈그림 19〉 Galiano, 04 F/W, 『Style』.

34) 윤난지, 『80년대 이후 세계미술과 다원주의』 (월간미술세계, 1993), p. 64.

35) J. Story, 박모 역, *Op. cit.*, (1999), p. 128.

36) '지연시키다 defer'와 '다르게 하다 defer'의 두가지 의미를 가진 차연(differance, 差延)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다. 차연은 쪽정의 씨가 무한대로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산포 현상'으로서 기원이 없으면서 끊임 없이 변화하고 증식하는 의미효과의 묶음이다.

37) 윤난지, *현대 미술의 풍경*, (예경, 2000), p. 34.

38) *Ibid.*, p. 35.



〈그림 20〉 Dior, 01 F/W, 'Style'.

었다. 〈그림 20〉은 다양한 머리 장식품들을 응용한 것으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머리띠에서부터 본래 모발색과 다른 유치한 헤어피스 등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조화롭게 조정되지 않은 채 겹다하게 장식되어 있다.

이와 같이 헤어스타일의 상호 텍스트성은 신분, 미의식, 연령, 상황, 시대 등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과 도구를 두 가지 이상 응용하여 헤어스타일의 표현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착장방법 및 미적 경계선을 허물고 서로 병행하여 인용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1995년 S/S시즌부터 2004년 F/W시즌까지 컬렉션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의 포스트모더니즘 표현양상에 대하여 정성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헤어스타일의 포스트모더니즘 표현양상을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비독창성, 모형식성, 탈중심성, 상호텍스트성으로 분류된 분석틀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비독창성은 차용과 복고의 표현방법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거에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에 사용되지 않은 오브제들을 이용하거나 과거의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이 재현되어 나타나는 것을 위미하며 이때 개성적이고 현대적으로 재형성되어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났다. 모형식성은 디자인 원리와 법칙을 무시하고 미적 질서를 파괴한 부조화와 완성에 대한 미적 가치를 파괴한 미

완성의 표현방법으로 나타났다. 탈중심성은 서구적, 엘리트적, 부르조와적인 표현양상 등에 대한 우의적 질서를 무시하고 그동안 소외되고 열외되었던 비서구적 표현이나 하위문화적 표현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다양하게 나타났다. 상호 텍스트성은 하나의 의미와 하나의 기호로써 작가의 의도가 파악되는 가호성이 아닌 수많은 기호와 의미가 혼합되어 독자가 자유롭게 해석 가능한 것으로 다양하고 다원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현대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나타났다. 셋째, 현대 사회와 문화, 예술 현상을 대표하는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이 헤어스타일에도 반영되어 나타남을 확인함으로써 헤어스타일은 하나의 작은 문화이며 시대적 산물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해 온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를 행함으로써 현대 패션을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었고 헤어스타일의 표현방법과 미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표현양상을 정성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양상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헤어스타일이 사회문화적 현상의 일부분으로 그 위치를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헤어스타일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토탈코디네이션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대 패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하이패션인 컬렉션뿐만 아니라 매스 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의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표현양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표현 양상의 일반화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의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전반적인 복식의 포스트모더니즘 표현양상에 대한 이해가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택영 (1995).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김민자 (2004). *복식미 역보가 복식미학 강의 2*. 교문사.
 김옥동 (1996).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현암사.
 윤난지 (2000). *현대미술의 풍경*. 예경.
 이진우 (1993).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이해*. 서광사.
 홍나영, 신혜성, 최지희 (2004). *아시아 전통복식*. 교

- 문사.
- 장에란 (1998). *벙크룩이 반영된 Vivienne Westwood 작품의 기호적 해석*. 복식 39호.
- 윤난지 (1993). *80년대 이후 세계미술과 다원주의*. 월간미술세계.
- 경은주 (1995). “현대 복식에 적용된 해체주의적 표현 방법.”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현진 (1994). “현대패션에 나타난 패러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옥 (1998). “현대패션에 표현된 키치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자 (1987). “2차 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I).” 복식
-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II).” 복식
- 김원희 (2002).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차용과 반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 (1996). “키치패션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정심 (1994).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희 (1991).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선경 (1994).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의 개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덕 (2001).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후 (1998). “포스트모더니즘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효진 (2001). “현대 복식에 내재된 차용의 의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 정현숙 (1995).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rnard, M. (1996). *Fashion as Communic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olor Design (2001). Pivot Point International Inc.
- Fischer, C. S. (1975). “Towards a Subcultural theory of Urbanism.”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 Habermas, J., (1987). *미술비평30선*. 이영철 역, 서울: 중앙일보.
- Hair Sulpture Ladies (1994). Pivot Point International Inc.
- Hamilton, J. A. (1993). *Dress and the Dynamics of Culture*, ITAA, #5.
- Hughes, R., 최기득 역 (1991). *새로움의 총각 모더니즘의 도전과 환상*, 미진사.
- Pedersen, E. L. (1991). *Culture and Historical Aspects of Dress* : ITAA, #4.
- Plohmus, T. (1997). *Streetstyle*. New York : Thames and hudson.
- Poster, H. (1994). *반미학*. 현대미술사, 윤호병 외 역.
- Story, J. (1999).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연구, 박도 역.